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관직장, 부조리장, 총조리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배무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배들을 무어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선박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는 로동계급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신심, 미래에 대한 락관이

넘쳐흐르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 자랑스럽고 용감한 로동계급들이 있는 한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배들을 척척 무어낼수 있는 강력한 선박공업기지가 창설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선박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배들을 무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

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후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지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특색있게 꾸려지고있는 호텔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호텔을 산골맛이 나게,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잘 꾸리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복도와 침실 등 호텔의 모든 요소요소가 산골냄새가撲撲 난다고, 마치 자연속에 들어온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초, 중급주류휴식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여러 스키주로도 기쁨속에 보아주시면서 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대로 주로를 잘

담았으며 푸른 잔디까지 정성껏 심어놓으니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지난 10월 15일에 대화봉에 첫눈이 내리였으며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완공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이 구상하고 발기한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이제는 완공을 눈앞에 두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이며 그들의 영웅적위훈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군대에 맡기기를 정말 잘하였다고,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올해에만도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제 마식령스키장까지 완공되면 마식령지구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게 된 건설자들이 격정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에게 오래오래 손재주어주시며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부강조국건설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식령스키장을 세상에 돌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전투입무수행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투입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용사들의 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었다.

동행한 조선로동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용사들의 묘에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묘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비에 붙인 용사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며 사진이 잘되었다고,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격정을 누르시며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해병들도 용사들의 바래움과 부락을 안고 전투입무수행의 항로에 오를수 있게 되

었다고,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곁을 떠났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용사들의 묘를 더욱더 바라보시다가 묘비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

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기에 누워있는 용사들은 모두 자신의 전우,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최고사령관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을 원을 풀어야 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지만 전사는 조국의

명령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값 높은 희생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켰으며 전투명령을 묵숨바쳐 집행한 용사들의 위훈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군부대의 해병들은 물론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과수부문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과수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5일과 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과수업부문 생산단위들과 과학, 교육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과일나무모양생, 재배, 병해충, 농기계분과로 나뉘어 열린 발표회에는 과수련합총회, 농업성, 농업과학원,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숙천농업대학 등에서 내놓은 130여건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어 갈 일년안고 과학연구와 생산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자료들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과일나무모양 생능은 농약, 농기계생산방법, 열매맺음률을 높인 방법을 비롯하여 과일나무재배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연구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직배양에 의한 무미루스 키낮은사과나무접근과 대량생산체계 확립(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포도원조성을 위한 포도나무모생산에서 얻은 경험(사리원 과수농장), 천연항나노살충제의 적용효과(교산과수농장), 천연항나노분산제에 의한 병해충구제방법(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논문들이 큰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들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본사기자

영국순군정치연구협회, 주제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10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침략전쟁연습은 박근혜당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길게 없고 그렇게 되면 통일을 이룰수 없다.

동서고급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문제를 옹호해결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야욕만이 있을뿐이다. 오늘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 무슨 《의혹》이니, 《징후》니, 《은혜》니 하는 구실을 붙여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분열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쳤다. 조국통일이 근 70년이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주요하게 외세

#### 영국단체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

전쟁연습은 남조선이 미국과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전쟁각본까지 짜놓고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속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한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호전광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외세와의 공조로 초래될것은 대결의 격화이고 전쟁위험의 증대이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외세공조는 대결공조, 반통일적인 전쟁공조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들이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파괴되고 정세는 전쟁적경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전쟁연습은 미국이 떠드는 《평화》타령의 허위성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돌아치고있다. 이런 가운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그 누구의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초대화》니, 《선제타격》이니, 《철저한 응징》이니 하며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새로 합성함모본부 의장자리에 들어 앉은 최윤회는 감투를 쓰기가 바쁘게 미국상전에게 전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보여주었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호전광들은 조선반도를 온갖 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군으로 존엄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의 인민들과 어깨걸고 함

께 나아갈것이다. 세계진보적인인민들이 미국과 남조선피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은 하나다! 양키는 물러가라! 박근혜피호전광을 타도하자!

본사기자

력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확정발표하는데 이르렀다.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오판으로도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

외세에 의해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이제 또 다시 민족의 리익과 안전을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제물로 내맡길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민족의 화해도 있고 통일이 있다.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조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적인 전쟁공조책동을 짓부시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기어이 성취하고자 맞닿는다.

김연희



인민들이 좋아하는 김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평양김생공장에서는-







#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기념비 - 옥류아동병원



## 후대사랑과 최상급의 아동병원

맑고 푸른 대동강의 자연경치와 한껏 어울려 수려한 절경을 이룬 문수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옥류아동병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지구상에는 발전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많고 아동병원들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쓰이는 치료설비들,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들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아동의료봉사기지를 또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구석구석까지 흠잡을데 없이 꾸러진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것인가를 폐부로 절감한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아동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으

로 손색없이 꾸릴것을 결심하시고 직접 건설을 맡기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아동병원의 설계도안과 매방에 놓을 비품들, 유희기구, 휴게 놓을 의자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쏟아지는 비에 옷설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도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듯 입원실마다 TV와 팽동기들을 놓아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상에 돌도 없는 병원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직승기리착륙장에도 어려 있다.

아동병원이 건설된 초기에는 직승기리착륙장이 예견되어있지 않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명이 위급한 어린이들을 빨리 수송하기 위하여 병원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나날 직승기리착륙장을 새로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여 병원에 직승기의 리착륙을 위한 장소가 번듯하게 꾸러지게 되었다.

지난 10월 완공을 앞둔 어느날 또다시 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었으면 나라의 천만가지 일을 돌보셔야 할 그이께서 하나의 아동병원을 짓는데 그렇듯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으랴.

하기에 사람들이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난 옥류아동병원이야말로 그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낳은 기념비적전축물이라고.

본사기자 홍범식

## 나라의 왕들이 받는 혜택

옥류아동병원의 모든 치료실들과 검사실, 입원실들마다에는 아이들의 병치료에 필요한 최신의료설비들이 그 흔히 갖추어져있다.

대표적으로 화상진단부문에 있는 진단설비들을 들수 있다.

환자의 병진단에 쓰이는 다목적렌트젠(MRI)은 최첨단디지털검출기를 리용하여 환자들에게 렌트젠선을 최소한 적게 주면서도 가슴투시와 심장혈관조영, 일반혈관조영, 뼈검사 등 신체의 각 부분들의 검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의료설비이다.

다목적렌트젠CT도 화상도와 그 질에서 종전의 CT에 비해 수십배나 높은 16셀 라선형 CT인데 일반검사에서 진단이 애매한 내부상을 구체적으로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초고속으로 전신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다.

다목적렌트젠은 뇌나 신

경계동, 장기계통을 CT보다 더 세부적으로 촬영하여 어디에 어떤 병조가 있다는것을 정확히 진단할수 있는 첨단의료설비이다.

소생 및 집중치료과에도 환자들의 생명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종합감시탁에 알려주는 환자감시장치, 오랜 시간동안 약물을 투입하는데 필요한 미량약물주입기, 호흡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자동으로 호흡을 시키는 인공호흡기, 1개월미만 어린이들의 체온을 자동적으로 수감하고 조절해주는 개방식보육기, 심장소생에 필요한 탈세동기 등 필요한 의료설비들이 있다.

종합수술장에 있는 심폐기는 심장수술시 떼어있는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는것으로서 수술의 성과를 담보하는 값비싼 첨단의료설비에 속한다.

옥류아동병원의 첨단의료

설비와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날 병원을 찾은 한 나라의 기술자는 조립단계에 있는 설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도대체 누구를 치료하는 병원이기엔 이런 값비싼 설비를 들여놓는가 하는것이였다. 자기에게도 돈이 적지 않지만 이런 값비싼 의료설비들이 아이들의 병치료에 리용된다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였던것이다.

안내원에게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된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큰 관리나 부자들의 자식들이나 겨우 들어가볼 그런 병원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이런 최신의료설비들로 치료받다니 도저히 믿을수 없다고, 이런 제도, 이런 나라를 처음 본다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속옥류아동병원에 들어서니 동화세계를 방불케 한 희한한 정경이 펼쳐졌다.

연미색바닥이며 만화그림들이 새겨진 벽체들, 아롱아롱 불장식을 한 무리등과 특색있는 유리문들, 그 모든것이 우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색조화를 이루고있는데 더욱더 황홀경을 이룬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장

30여년을 소아과부문에 일해온 이곳 병원의 강령관 기술부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파도 뒤돌고싶어하는것이 아이들이 아닙니까. 치료받을 때 무서움중이 있다가도 이 놀이장에서 뛰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어 치료에도 적극

경우교원의 말을 들으며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고마운 제도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배우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철부지들이건만 나라에서는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지극하고 뜨거운 사랑을 어린이들에게 쏟아주고 있다.

위대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어머니의 젖줄기마냥 흘러드는 아동병원을 나서니 눈앞에는 공화국의 맑고 푸른 하늘이 안겨들었다.

본사기자 최대성

## 복합은 행복동이를

갖가지 색깔의 빨들이 있는 수영장과 구새나무집을 형상한 나무미끄럼대,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져내릴수 있는 미끄럼대, 짐수레가 달린 자전거를 비롯하여 탁아유치원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짙색스런 유희기구들과 자연의 풍치를 이채롭게 장식한 오락기재들이 1층과 2층에만도 무려 18종에 38가지나 구비되어있었다.

병원이라기보다 행복동이를 위한 사랑의 궁전이라는 생각이 더 깊이 갈마들었다.

호용하고 치료받은 후에도 좋은 기분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잘 계발시켜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안겨줄때 병치료도 잘 된다는 그의 말에는 소아과전문의사만이 알수 있는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되어있었다.

이재로운것은 입원실, 치료실들과 나란히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실》들이 아담하게 꾸려져있었던것이다. 교실들마다에 책상, 의자를 비롯한 교구비품들이 아이들의 나이

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색깔별로, 모양별로 특색있게 갖추어져있었다.

입원해있는 기간 수업과 정안이 밀리는것을 고려하여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추어주어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는 립

## 아동들의 심리에 맞게

후회 병원에 간다고 하면 아이들은 겁부터 앞세우고 울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울면서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옥류아동병원이다.

푸른 주단을 펼친듯 한 잔디밭이며 풀을 뜯으며 뛰노는듯 한 토끼를 비롯하여 짙짙하고 귀여운 각이한 동물 조각상들은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러기하면 시원한 넓은 공지에 꾸러진 야외놀이터들과 대동강변의 춤추는 분수이런듯 물보라를 날리는 분수터, 아담한 꽃동산의 휴식터들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옥류아동병원의 종합홀에 들어서면 정면에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형상한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한눈에 안겨오고 천정에는 꽃잎모양, 해살모양의 빨강과 파란 색조명등이 밝은 빛을 뿌린다.

입원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복도와 계단의 벽들에 우리의 나라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들에서 나오는 그림들로 딱 차있어 마치 동화미술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1층과 2층의 여러곳에 꾸러진 실내놀이장들에는 꼬끼리를 형상한 그네, 딱정

벌레모양의 기구, 구새나무모양의 썰매를 비롯한 놀이기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으며 휴식터들마다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작은 의자들이 구비되어있다.

계단의 칸간대도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오르는데 편리하게 되어있으며 상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감들과 당과류, 동화그림책들이 갖추어져있다.

실로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모든것이 동심에 맞게 꾸러져있어 찾아오는 아이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옥류아동병원이다.

본사기자 김동윤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서 옥류아동병원에서는 소아과부문의 먼거리의료봉사도 하게 된다.

먼거리의료봉사는 중앙과 지방사이, 지방과 지방사이 병원들이 정보기술에 의거하여 호상 긴밀한 령계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 등 모든 보건사업을 신속 정확히 진행하고 개선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첨단의료봉사이다.

공화국에는 이미 전국적인 범위에서 령의진단 및 수술지원을 할수 있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아동병원에서도 전국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봉

사를 할수 있는 먼거리의료봉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도 보내주시었다.

병원의 먼거리의료봉사에서는 유능한 의사와 전문가들이 전국각지에서 요구하는 의료상방조를 실시간으로 주게 된다.

옥류아동병원에서 먼거리의료봉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어린이들이 자기 치료단위에서 옥류아동병원의 유능한 의료진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병상태와 검사지표들, 수술 등을 화면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료해분석하고 진단뿐 아니라 수술방까지 주는 먼거리의료봉사로 온 나라의 어린이들이 받게 되는 의료상방조, 이것은 가장 우월한 전진적무상치료 제도하에서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누려가는 또 하나의 혜택이다.

본사기자



